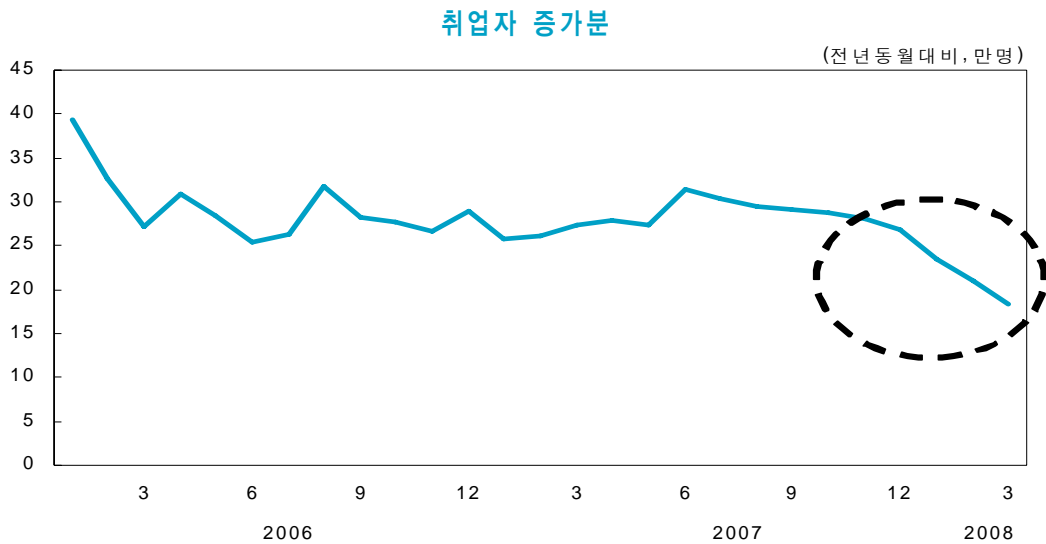


KDI 현안분석: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대한 분석

KDI 연구위원 신석하
KDI 연구위원 김희삼

1. 문제의 제기

-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 내외 수준으로 크게 둔화됨에 따라 그 원인과 향후 추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.
- 취업자는 2007년 6월(전년동월대비 31만 5천명 증가) 이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다가 최근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어 3월 중에는 전년동월대비 18만 4천명 증가에 그침.
 -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는 2001~05년 기간 평균인 34만명을 크게 하회하며, 2006~07년 기간 평균인 20만명대 후반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임.



자료: 통계청.

■ 본고에서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구조적 측면과 일시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,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.

-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요인으로 주택경기 침체, 체감경기 둔화,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 등 수요 측면의 일시적 요인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
 -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정부의 고용정책도 기업투자 활성화 등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- 본고에서는 경기둔화 등 일시적 요인에 관한 분석과 함께, 인구증가율 및 연령구조 등 노동공급 측면의 구조적 요인도 분석
- 이하에서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추이를 먼저 분석한 후, 구조적 측면과 일시적 측면을 차례로 고찰하고자 함.

2.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추이

■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구조적 측면과 일시적 측면을 가늠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 이후 15세이상인구, 경제활동참가율, 실업률의 변화가 취업자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

- 취업자(E)는 15세이상인구(P)가 증가할수록, 경제활동참가율(a)이 높아질수록, 실업률(u)이 하락할수록 증가함.

$$E = P \times a \times (1 - u)$$

-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각 요인의 변화가 취업자 증가분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.
 - 15세이상인구 변화에 의한 부분은 주로 공급 측면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고,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변화는 구조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을 모두 반영
 -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을 때 해당 요인의 변화가 취업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는 것으로서, 요인들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

$$\begin{aligned}
 E_t - E_s &= P_t a_t (1 - u_t) - P_s a_s (1 - u_s) \\
 &= (P_t - P_s) a_s (1 - u_s) + P_t (a_t - a_s) (1 - u_s) - P_t a_t (u_t - u_s) \\
 &\quad \text{15세이상인구 변화 기여도} \quad \text{경제활동참가율 변화 기여도} \quad \text{실업률 변화 기여도}
 \end{aligned}$$

s 와 t 는 각각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를 나타냄.

-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해 본 결과, 장기적으로 둔화추세에 있는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세가 20만명대 중반을 상회하여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
 - 15세이상인구 증가의 취업자 기여도는 1980년대 후반의 37만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 이후 20만명대 중반에 머물고 있음.
-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실업률 하락세도 둔화됨에 따라 고용률(≡경제활동참가율×(1-실업률))이 소폭 하락하면서 취업자 증가분이 20만명 내외까지 하락
 - 인구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0~05년 기간에는 외환위기 동안 급락했던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30만명을 상회
 - 2006~07년 기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하락(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)하였으나, 실업률 하락에 의한 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20만명대 후반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
 - 그러나 2008년 1/4분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하락하는 가운데 실업률 하락세도 둔화됨에 따라 취업자 증가분이 20만명대 초반까지 하락
 - 실업률 하락에 의한 취업자 증가분은 3만 4천명에 머물러 경제활동참가율 하락(전년동기대비 -0.3%p)에 의한 취업자 감소분 7만 6천명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

취업자 증가분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

(단위: 만명)

기 간	취업자 증가분 (A+B+C)	기 여 도		
		15세이상인구 증가 (A)	경제활동참가율 상승 (B)	실업률 하락 (C)
1986~90년	62.4	37.4	19.7	5.3
1991~95년	46.6	32.8	12.1	1.7
1996~2000년	14.8	30.0	-6.6	-8.6
2000~05년	34.0	25.1	6.1	2.8
2006년	29.5	27.6	-3.9	5.8
2007년	28.2	24.4	-2.0	5.8
2008년 1/4분기	21.0	25.1	-7.6	3.4

주: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분에 대한 기여도의 기간 평균값임.

3.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구조적 측면 - 인구구조의 변화

- 인구구조 고령화는 노동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고용률 하락을 통해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25~49세 인구는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부터 감소하고, 평균퇴직연령(55세) 이전의 25~54세 인구도 2009년부터는 감소할 전망
- 고령화가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 인구추계에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하여 추산한 결과(Box 참조), 취업자 증가폭은 2008년 22만명에서 2012년 15만명 내외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인구구조 고령화는 고용률이 높은 핵심근로연령대 인구를 감소시키고 고용률이 낮은 고령층의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취업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- 전체 취업자가 28만 2천명 증가한 2007년의 경우에도, 20~40대 취업자는 오히려 9만 3천명 감소한 바 있음.

향후 취업자 증감 추산 (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될 경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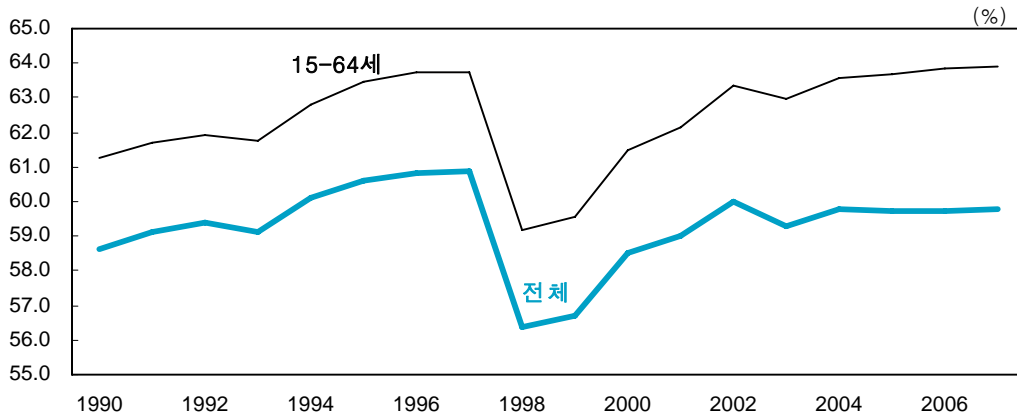
(단위: 만명)

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
전 체	28.2	22.2	20.3	18.6	17.5	15.2
15~64세	20.3	15.7	14.7	13.4	11.8	8.7
15~19세	0.2	0.6	0.5	0.3	0.1	-0.2
20~49세	-9.3	-10.4	-14.7	-17.4	-17.3	-16.7
50~64세	29.4	25.5	29.0	30.5	29.1	25.7
65세 이상	7.9	6.6	5.6	5.2	5.7	6.4

주: 2007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분, 2008년 이후는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앞 표의 연령대별 인구에 2007년 연령대별 고용률을 적용한 단순 추정치임.
 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장래인구추계(2006. 11.).

- 물론 이와 같은 추산은 2007년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므로, 고용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 요인(경제성장률, 경제활동참가율, 해외인구유입 등)에 따라 실제 취업자 증가폭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.
 - 그러나 전반적인 고용률이 외환위기 직전(60.9%)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2004년 이후 60%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, 단기간에 고용률이 큰 폭으로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.

고용률 추이



연령대별 인구 및 고용률

■ 앞에서의 취업자 증가폭 추산은 다음과 같은 연령대별 인구추계 및 2007년의 연령대별 고용률에 기초하였음.

(단위: 만명, %)

연령대	인구						고용률
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
15~19세	320.2	328.1	335.5	340.7	341.8	338.4	6.6
20~24세	273.5	261.4	254.1	251.5	251.9	256.4	48.0
25~29세	391.8	392.0	384.5	369.7	352.5	334.5	68.4
30~34세	393.3	381.2	374.4	374.4	379.2	384.1	70.6
35~39세	434.9	437.4	434.5	426.0	412.9	398.4	74.9
40~44세	410.1	408.0	410.1	415.2	421.8	427.8	79.0
45~49세	418.1	422.8	421.8	417.2	411.2	406.1	77.6
50~54세	340.1	362.6	384.4	402.4	416.7	427.2	73.0
55~59세	247.2	255.5	267.8	287.0	309.3	330.8	65.2
60~64세	200.7	207.1	216.2	225.0	232.5	239.8	55.0
65세 이상	487.1	507.9	525.8	542.4	560.7	581.4	31.1

주: 2007년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연령대별 조사인구, 2008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상의 연령대별 추계인구에 2007년 연령대별 (조사인구/추계인구)의 비율을 곱하여 추계인구와 조사인구의 차이(군인, 전투경찰, 공익근무요원, 교도소 수감자 등은 추계인구에 포함되나 조사인구에는 불포함)를 보정한 인구임.

자료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, 장래인구추계(2006. 11.).

4. 취업자 증가세 둔화의 일시적 측면 - 내수 경기둔화

■ 최근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, 제조업 고용상황은 소폭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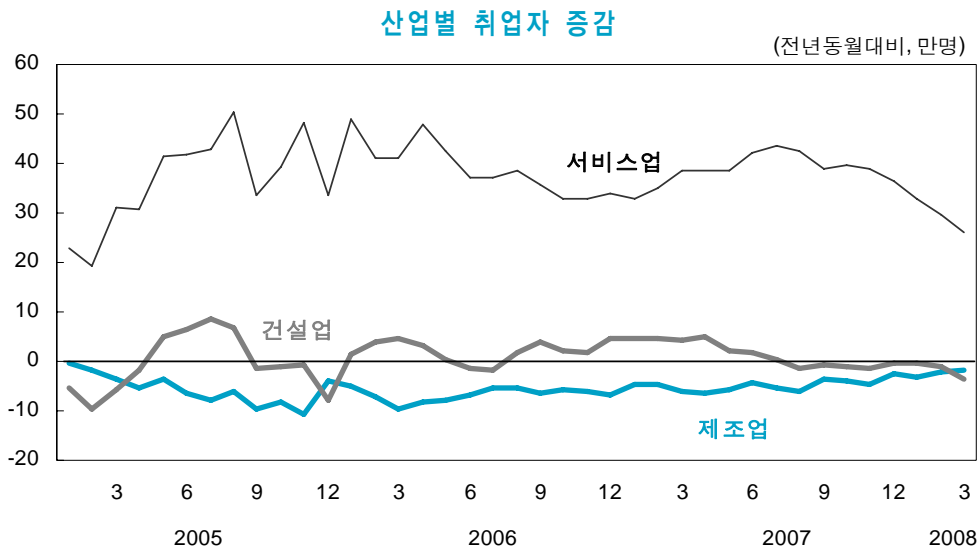
● 서비스업 취업자는 2007년 8월(43만 9천명) 이후 증가폭이 하락하여 금년 3월 중에는 전년동월대비 29만 6천명 증가에 그침.

- 세부산업별로는 사업서비스업, 기타공공·수리 및 개인서비스업, 운수업 등에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 및 임대업의 부진도 심화되는 모습
- 반면, 공공행정·국방·사회보장 행정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교육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

● 건설업 취업자는 2007년 3/4분기 이후 증가세가 정체되었으며, 최근에는 감소폭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

● 반면 제조업은 취업자 감소폭이 점차 줄어드는 등 고용상황이 오히려 소폭이나마 개선

- 제조업 출하 증가세가 수출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, 제조업 내에서도 내수부문에서는 고용이 부진할 가능성



자료: 통계청.

- 서비스업이 대부분 내수업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,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경기 둔화가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
 - 수출은 아직까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작년 말 이후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의 증가세가 둔화
- 실제 총수요항목이 고용(혹은 취업자 수)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, 서비스업 고용이 소비에 주로 반응한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.
 - 수요항목 간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1990년 1/4분기~2007년 4/4분기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, 투자, 순수출 등 총수요항목이 전체 고용 및 산업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추정
 - 추정 결과, 제조업 고용은 소비보다 투자 및 순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, 서비스업 고용은 투자 및 순수출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, 대부분 소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남.

총수요항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

	취업자				
	전체	전체	제조업	건설업	서비스업
소 비	0.13 (3.45)	0.16 (3.82)	-0.08 (-1.14)	0.42 (3.44)	0.15 (2.77)
투 자	0.05 (3.90)	0.04 (3.18)	0.19 (6.90)	0.11 (2.52)	0.02 (1.45)
순수출(1분기 전)	0.0005 (2.37)	-	0.002 (4.28)	-0.0008 (-1.01)	-0.0002 (-0.56)
수출(1분기 전)	-	0.006 (0.52)	-	-	-
시차종속변수	0.54 (11.22)	0.53 (10.3)	0.64 (14.01)	0.75 (20.8)	0.58 (8.68)
R^2	0.91	0.90	0.91	0.92	0.85

주: 1) 모든 변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의 형태임.
 2) 모든 추정식에는 상수항 포함.
 3) 괄호 안의 수치는 t-값을 나타냄.
 4) 진하게 표시된 숫자는 5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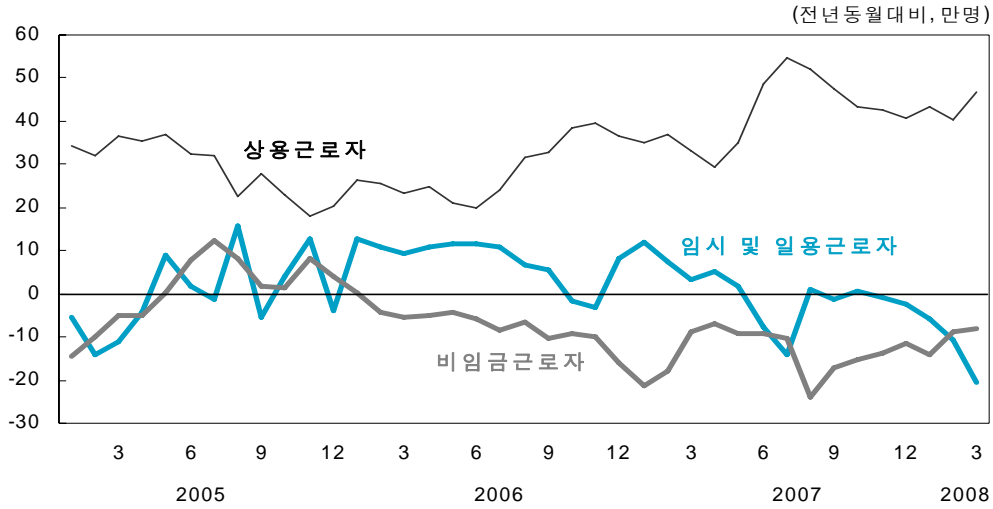
■ 이와 동시에 본 회귀분석 결과는, 경제 전체로 볼 때에도 소비·투자 등 내수가 단기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(순)수출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.

- 실질 소비증가율이 1%p 높아지면 단기적으로(해당 분기에) 전체 고용증가율이 0.13%p 높아지며 장기적으로는 0.29%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는 2007년의 경우 소비증가율 1%p 상승(약 4.9조원)이 단기적으로 3만명, 장기적으로 7만명 내외의 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
- 이에 비해 실질투자 증가율 1% 상승(약 2.2조원)은 단기적으로 1.2만명, 장기적으로 2.6만명의 고용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에 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조금 낮은 것으로 추정됨.
- 순수출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하나,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매우 작은 것으로 추정됨.
 - 총수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음.
- 소비·투자 등 내수의 취업유발계수가 수출에 비해 상당히 크다는 점은, 산업연관분석의 취업유발계수로도 확인됨.
 - 가장 최근의 산업연관표(2003년)에서 추산된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취업유발계수가 각각 10억원당 20.5명, 14.6명인 데 비해 수출은 12.7명에 불과
 -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장기간 동안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소비 및 투자의 취업유발계수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최근에는 내수와 수출 간 고용유발효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측됨.

■ 한편, 소비 등 내수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는 모습

-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한 2007년 말부터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이 빠르게 확대된 반면, 상용근로자는 40만명대 중반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
 - 임시 및 일용근로자(전년동월대비 증감, 만명): ('07년 11월) -0.9 → (12월) -2.4 → ('08년 1월) -5.8 → (2월) -10.8 → (3월) -20.4
- 한편 구조적 감소세를 나타내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2007년 중반 이후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음.
 -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2007년 9월 이후 3만명 내외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는 2007년 8월의 12만 3천명 감소에서 최근에는 1만명 내외 감소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는 모습

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



자료: 통계청.

- 이러한 현상은 작년 말 이후 소비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조정이 용이한 임시 및 일용직이 축소되는 한편,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
 - 시차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소비증가율이 둔화되면 일용직의 조정은 해당분기에 주로 발생하며, 임시직은 1분기 후, 상용직은 2분기 후에 가장 조정폭이 큼을 시사
 -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분기에 가장 조정폭이 크며, 무급가족종사자는 경기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.

종사상지위별 취업자증가율과 소비증가율 간 시차상관관계

		시차				
		0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임금근로자	상용근로자	0.44	0.53	0.57	0.54	0.47
	임시근로자	0.51	0.57	0.51	0.35	0.13
	일용근로자	0.53	0.30	-0.06	-0.41	-0.66
비임금근로자	자영업자	0.61	0.55	0.42	0.24	0.09
	무급가족종사자	-0.21	-0.05	0.15	0.28	0.25

주: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간 상관관계임.

5. 요약 및 시사점

-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인구구조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경기둔화 등의 일시적 요인이 가세한 결과로 사료됨.
 - 인구구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(15세 이상) 증가율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추세를 감안할 때, 향후에는 연간 취업자 증가세가 20만 명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운 상황
 -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단기적인 경기둔화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문(서비스업, 임시·일용직)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고용둔화 가능성을 완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나, 그와 같은 정책은 노동공급 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
 - 교역조건 악화 및 원화가치 하락 등에 의해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경우, 추가적인 고용둔화를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 일부 필요할 가능성
 - 원화 약세는 수출을 개선시키는 반면 내수를 억제하여 전반적인 고용에 부정적인 요인
 -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인 정책은 인구구조 등 노동공급 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
 - 과거 2~3년간 소비호조로 생산가능인구 증가분을 상회하는 20만명대 후반의 취업자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었으나, 금년에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취업자 증가분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추산치 20만명대 초반을 상회하기 어려울 전망
 - 단기적으로는 소비부진을 완화하는 정책이 고용부진을 다소 완충시킬 수 있을 것이나, 공급 측면의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노동수요의 진작만을 통해 무리하게 높은 수준의 고용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은 고용 증가보다 임금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

- 지속적인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요 측면의 정책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수불가결함
 - 경기둔화 등 단기적인 고용부진 요인이 점차 해소되는 경우에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급 측면의 요인들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 - 따라서 지속적인 고용증가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이 긴요
 - 특히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은 기혼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(Box 참조)

우리나라와 OECD의 고용률 비교

- 우리나라의 15~64세(OECD 기준) 고용률은 외환위기 직전(63.7%) 수준인 63%대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OECD 평균(65~66%)보다 낮은 수준
- 연령대별로는 높은 대학진학률(2007년 82.7%)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(15~24세)의 고용률이 낮고,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고령층(55세 이상)의 고용률이 여전히 높은 반면, 핵심근로연령층의 고용률은 유사

연령대별 고용률

(단위: %)

연령대	지역	1994	2003	2004	2005	2006
15~24세	한 국	34.5	30.8	31.2	29.9	27.2
	OECD	45.7	42.7	42.9	42.9	43.3
25~54세	한 국	73.6	73.1	73.4	73.4	73.9
	OECD	74.5	75.2	75.6	75.8	76.5
55~64세	한 국	62.9	57.8	58.5	58.7	59.3
	OECD	46.1	50.2	51.0	52.0	53.0

자료: OECD, *Employment Outlook*, 2007.

- 성별로는 여성의 핵심근로연령층 고용률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,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실정
- 특히 대졸 여성의 고용률(60% 미만)은 OECD(80%에 육박)에 비해 현저히 낮음.

연령대별 여성 고용률

(단위: %)

연령대	지역	1994	2003	2004	2005	2006
15~24세	한 국	39.3	36.0	36.3	35.5	32.3
	OECD	40.8	38.8	38.9	39.2	39.3
25~54세	한 국	54.2	56.8	58.0	58.6	60.0
	OECD	61.5	64.1	64.5	64.8	65.7
55~64세	한 국	49.4	45.4	45.9	45.7	46.4
	OECD	34.0	40.1	40.9	42.1	43.2

자료: OECD, *Employment Outlook*, 2007.

성별 · 교육수준별 고용률 (2005)

(단위: %)

	남 성			여 성		
	고졸 미만	고 졸	대졸 이상	고졸 미만	고 졸	대졸 이상
한 국	78.5	85.1	89.6	57.9	54.5	58.5
OECD	66.3	83.5	88.7	45.7	65.7	78.9

자료: OECD, *Education at a Glance - OECD Indicators*, September 2007.